

## 투르크메니스탄의 최근 에너지외교 동향

### 1. 신정부 출범 이후 대외활동

- 지난 2월 권좌에 오른 투르크메니스탄의 베르디무하메도프 대통령은 지난 4월 러시아를 공식 방문한 데 이어, 5월에는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과 카자흐스탄의 나자르바예프 대통령이 투르크메니스탄을 방문하였음.
- 일련의 정상외교는 주로 에너지 현안 해결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으나, 투르크메니스탄의 움직임은 여기에만 그치지 않을 것으로 보임. 오랜 폐쇄정책에서 벗어나고 있는 투르크메니스탄은 국가 정상화를 위해 열악한 제반 인프라 복구가 시급하고 여기에는 엄청난 투자가 불가피하기 때문임.

### 2. 3국 합의 내용 및 의의

#### □ 러시아와 새로운 가스관 건설에 합의

- 지난 5월 11일 투르크메니스탄의 수도 Ashgabat에서는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 카자흐스탄의 나자르바예프 대통령, 투르크메니스탄의 베르디무하메도프 대통령 등 중앙아시아 에너지 부국 지도자 3명이 모여 새로운 가스관을 건설키로 하는 성명서에 서명하였음.
- 이 성명서는 기존 투르크메니스탄 천연가스 수출의 80% 정도를 담당하던

CA-C(Central Asia Center) 가스관의 수송용량을 현재의 연 440억 m<sup>3</sup>에서 900억 m<sup>3</sup> 수준으로 대폭 확장하는 것과 새 가스관을 건설하는 것 등 2개의 가스관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음. 새 가스관은 2012년까지 200억 m<sup>3</sup>로, 궁극적으로는 연 300억 m<sup>3</sup> 용량으로 건설될 예정임.

- 이에 앞서 5월 9일 우즈베키스탄의 카리모프 대통령은 3국 정상회담에는 참석하지 않고 타시켄트에서 동일한 성명서에 서명하였음.

- 기존 CA-C가스관은 투르크메니스탄에서 우즈베키스탄과 카자흐스탄을 거쳐 러시아로 연결되는 가스관이기 때문에 카리모프 대통령도 성명서 서명에 참여했으나, 새로운 가스관은 우즈베키스탄을 통과하지 않고 카스피 해 연안을 따라 카자흐스탄과 러시아만을 통과하는 노선으로 구상되고 있음.



## □ 러시아, ‘중앙아 에너지 경쟁’에서 불완전한 우위 확보

- 1주일의 일정(5. 9~5. 15)으로 카자흐스탄과 투르크메니스탄을 순방한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이 합의로 양대 에너지 공급원인 카자흐스탄과 투르크메니스탄을 어느 정도 러시아의 에너지전략 구도 속에 묶어두는 성과를 거두었음.

- 특히 푸틴은 중앙아시아 순방일정을 오데사-브로니-그단스키 송유관 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관계국 정상회담 기간(5. 11~5. 13)에 맞춤으로서 반러시아 송유관 협의에 사실상 제동을 거는 효과를 거두었음.

- 오데사-브로니-그단스키 송유관 프로젝트는 카스피 해 횡단 파이프라인을 전제로 중앙아시아 지역의 막대한 석유를 흑해를 통해 폴란드까지 수송하는 사업으로 최대 산유국인 카자흐스탄이 동참해야만 추진할 수 있으나, 동 정상회담에 카자흐스탄이 불참함으로써 이 프로젝트 논의는 일단 무산되었음.

- 그러나 러시아는 양국을 자신의 영향력 하에 묶어두기 위해 여러 가지 당근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카자흐스탄과 달리 투르크메니스탄은 카스피 해 횡단 파이프라인 사업에 대해 러시아와 이견을 드러내고 있어, 푸틴 대통령의 에너지 외교는 제한적인 성공으로 평가되고 있음.

## □ 카자흐스탄 실리 챙겨

- 투르크메니스탄 가스관에 대한 관심 집중으로 언론의 주목은 덜 받았으나, 이번 푸틴의 순방길에 카자흐스탄도 러시아로부터 중요한 합의를 끌어냈음.
- 투르크메니스탄 가스관 신설 및 확장 모두에 중요한 결정권을 가진 카자흐스탄은 투르크메니스탄을 러시아에 묶어두는 대가로 숙원이던 CPC 송유관<sup>1)</sup> 확장에 대한 러시아의 동의를 끌어낸 것임.<sup>2)</sup>
- 이 합의로 카자흐스탄은 CPC 송유관을 통한 원유 수송량이 2,300만 톤(약 46.6만 b/d)에서 4,000만 톤(약 80만 b/d)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이며, 아울러 러시아가 추진하고 있는 Burgas-Alexandroupolis 송유관 사업에도 참여하게 될 것으로 보임.

## □ 카자흐스탄의 계산

- 미국과 유럽은 러시아의 간섭을 배제한 중앙아시아의 에너지 확보전략의 핵심으로 카자흐스탄의 유전을 BTC 송유관과 연결하는 카스피 해 횡단 파이프라인 건설을 추진해 왔으나, 최근 카자흐스탄은 이에 대해 여러 차례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하였음.
- 2006년 말 약 110만 b/d 수준인 카자흐스탄의 석유 수출량이 2015년에는 250만 b/d 이상으로 급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sup>3)</sup>, BTC 송유관이 카자흐스탄의 석

- 1) 카자흐스탄 Tengiz유전에서 러시아의 흑해 항구인 Novorossisk까지 연결되는 송유관
- 2) 러시아는 카자흐스탄 석유의 대서방 공급증대가 자신의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판단에다 낮은 통과수수료, CPC 송유관 지분이 24%(러시아가 최대 지분 보유)에 불과한 점 등을 이유로 CPC 송유관 증설에 미온적인 태도를 견지했으나, 이번 순방외교에서 카자흐스탄의 협력을 유도하기 위해 기존 입장을 바꾸었음.
- 3) 아직 생산이 개시되지 못한 동국 최대 Kashagan 유전에서만 생산이 피크에 달할 2019년에 약

유수출 증가분을 모두 감당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 따라서 석유수출의 러시아 의존을 벗어날 수 없는 상황에서 카자흐스탄은 카스피 해 횡단 라인 건설을 노골적으로 반대하고 있는 러시아의 입장을 거스르지 않는 것이 국익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임.
- 그러나 카자흐스탄은 현재 바지선 등을 이용하여 상당한 물량을 BTC 송유관을 통해 수출하고 있으며, 러시아 역시 카자흐스탄의 늘어나는 원유 수출물량을 다 소화할 수 없는 상황임.
- 따라서 카스피 해 송유관 건설은 실현되기에는 많은 난관이 있으나, 카자흐스탄에게는 여전히 잠재적 카드로 남을 것으로 보임.

#### □ 투르크메니스탄, 일단 러시아 선택

- 새로운 정권 출범 이후 대외정책의 변화 가능성에 대한 국제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베르디무하메도프 대통령은 지난 4월 러시아를 가장 먼저 방문하여 대외정책에서 러시아를 우선시하고 있음을 보였음.
- 여기에서 베르디무하메도프는 그동안 논란이 있었던 2003~28년의 러시아에 대한 장기 가스공급계약을 그대로 이행할 것이라고 밝혀 러시아를 안심시켰음. 연이은 푸틴의 답방에서 가스공급로를 크게 확대키로 합의함에 따라 러시아가 투르크메니스탄의 가스를 선점하고, 카스피 해 횡단 가스관 논의를 차단하는 효과를 거두었음.
- 양국간 가스공급계약은 수송능력 부족과 수출가격에 대한 이견 등 두 가지 문제를 안고 있었음.
  - o 장기적으로 가스관 확장 및 신설로 수송능력의 제한문제가 해소됨에 따라 2006년 420억 m<sup>3</sup>였던 투르크메니스탄의 대 러시아 가스수출량은 2007~10년에는 500억 m<sup>3</sup>로 증가하고, 궁극적으로 연 800~900억 m<sup>3</sup>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됨.

---

190만 b/d의 원유가 생산될 것으로 전망됨.

- 한편, 지난해 니야조프 전 대통령의 반발로 러시아는 가스가격을 1,000m<sup>3</sup>당 44달러에서 100달러로 인상하였으나, 투르크메니스탄은 여전히 가스가격에 불만을 가지고 있음. 지난 해 투르크메니스탄의 러시아 수출물량 중 390억 m<sup>3</sup>는 우크라이나로 재수출된 것으로 추정되며,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그루지야 등과 가스가격 분쟁을 일으키며 이들에 대한 가스가격을 유럽 공급가격인 300달러/1,000m<sup>3</sup> 수준으로 인상하는 정책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임.
- 이와 같은 가격괴리가 러시아의 공급루트 독점에서 비롯된다고 인식하고 있는 투르크메니스탄 정부는 대체수송로 확보에 대한 기대를 버리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임.

#### □ 투르크메니스탄, 일방적으로 러시아 추종하지는 않을 듯

- 국내시장 및 유럽시장에 천연가스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러시아는 투르크메니스탄의 천연가스를 필요로 하고 있으며, 중앙아시아의 에너지패권 유지를 위해서도 투르크메니스탄의 협력이 꼭 필요한 상황임.
- 따라서 카자흐스탄에 비해 대 러시아 교섭에서 보다 유리한 위치를 점하고 있는 투르크메니스탄은 탈러시아 조짐을 여기저기에 나타내고 있음.
- 지난 11일 3국 정상의 성명서 발표에 이은 기자회견장에서도 양국 정상은 다른 목소리를 냈는데, 푸틴은 새로운 가스관 프로젝트에 대한 제3국 참여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대해 러시아, 카자흐, 투르크 등 세 나라면 충분하다고 답변하였음.
- 그러나 이 자리에서 베르디무하메도프 대통령은 카스피 해 횡단 가스관이 건설될 수 있다고 밝혀, 대체수송로인 카스피 해 횡단 가스관 확보가능성을 부인한 카자흐스탄과는 다른 태도를 명확히 했음. 또한, 러시아 대한 공급이 크게 확대되면 투르크메니스탄이 추구하고 있는 중국, 인도, 카스피 해 연결 등 여러 대체수송로를 통한 추가공급 여력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도 충분하다는 낙관적인 견해를 피력했음.<sup>4)</sup>

4) 대 러시아 공급이 크게 늘어난 뒤에도 다른 공급로에도 가스를 충분히 공급할 수 있다는 투르크메니스탄의 자신감은 지나치게 낙관적인 것으로 분석됨.

- 또, 지난 4월 23~24일 중 베르디무하메도프 대통령이 러시아를 공식 방문하기 하루 전 투르크메니스탄의 메레도프 외무장관이 미국을 방문하여 아제르바이잔을 통한 유럽으로의 가스공급 의사가 있다고 밝혔으며, 그 직후 투르크메니스탄은 미국의 석유메이저인 Chevron에 카스피 해 연안의 광구사업권을 제공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참고> 중앙아시아의 에너지 각축 동향**

**○ 중앙아 에너지 경쟁의 핵심은 러시아 영향력의 배제 여부**

- 최근 미국과 러시아 간의 경합에 중국까지 가세한 중앙아시아 에너지경쟁은 지난 18세기 영국과 제정 러시아의 중앙아시아 쟁탈전에 빚댄 제2의 '거대게임'(Big game)으로 불리며 국제사회 관심의 초점이 되고 있음.
- 그리고 이 거대게임의 승패 향방을 결정짓게 될 파이프라인에 대한 통제력 확보의 핵심은 파이프라인이 러시아 영토를 통과하는가 여부임.
- 카자흐스탄, 투르크메니스탄 등 산유국들은 내심 러시아로부터 독립된 파이프라인 확보를 열망하고 있으며, 미국 등 역외국들은 러시아 영토를 지나지 않는 파이프라인을 통한 에너지자원 접근을 시도하여 왔음.

**○ 미국, 카스피 해 횡단 파이프라인 추진**

- 미국은 러시아의 영향력을 배제하는 BTC 라인을 개통함으로써 아제르바이잔의 에너지자원을 확보하였고, 더 나아가 카스피 해 횡단 파이프라인(Trans-Caspian Pipeline: TCP)을 통해 카자흐스탄과 투르크메니스탄의 에너지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 왔음. 즉, 미국의 구상은 투르크메니스탄으로부터는 가스관을, 카자흐스탄으로부터는 송유관을 아제르바이잔과 연결시키는 것임.
- 미국은 지난 1996년부터 이 프로젝트 추진을 강력히 로비해 왔으며, 러시아의 에너지공급 안정성에 불안을 느낀 EU, 마찬가지로 러시아와 에너지 분쟁을 겪은 우크라이나, 아제르바이잔, 그루지야, 몰도바 등 GUAM 회원국들도 양국에 TCP 건설을 강력히 압박하고 있음.

**○ 중국노선 등 다른 파이프라인 노선도 추진**

- 한편, 중국은 이미 카자흐스탄과 송유관 연결공사를 진행하면서 카자흐스탄의 석유를 공급받고 있으며, 투르크메니스탄과도 가스관 연결사업을 발표한 바 있으나 실현여부는 아직 미지수임.<sup>5)</sup> 양국에게 중국은 러시아의 영향력을 배제하는 유력한 카드이긴 하지만, 한편으로는 또 다른 강대국의 무차별적인 에너지 확보 움직임에 대한 경계심이 확산되고 있음.
- 그밖에 투르크메니스탄은 아프가니스탄을 경유한 인도 및 파키스탄 노선 등의 대안을 검토하고 있으나, 여러 가지 이유로 아직은 구상에만 머무르고 있음.

### 3. 투르크메니스탄의 대외개방 움직임

#### □ 투르크메니스탄, 대외개방 확대할 듯

- 지난 3국 정상회담 이후 베르디무하메도프 대통령은 러시아, 우즈벡, 카자흐 기업들이 투르크메니스탄의 에너지사업에 투자할 것을 촉구했으며, 호텔건설사업에도 투자해 줄 것을 요청하는 등 에너지 이외의 분야도 언급하였음.
- 또한, 베르디무하메도프 대통령은 투르크메니스탄 정부가 10억 달러를 투자하여 카스피 해 연안 Turkmenbashi에 자유경제지역을 설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 □ 투르크메니스탄 진출 확대 필요

- 전 독재자 니야조프 사망 이후 투르크메니스탄은 점차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풍부한 가스자원을 배경으로 투르크메니스탄의 이런 움직임은 국제사회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음.
- 우리나라도 제2의 카자흐스탄이 될 잠재력을 지닌 투르크메니스탄에 대한 구체적인 진출가능성을 타진해야 할 시점으로 보임.

5) 2006년 4월 니야조프 前 대통령이 중국과 2009년부터 연 300억 m<sup>3</sup> 이상의 가스를 중국에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동 계약은 가스관 노선 미확정, 투르크메니스탄의 공급물량 생산 의구심 등 많은 불확실성을 안고 있음.

- 투르크메니스탄을 비롯한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지나친 러시아의 영향력 확대를 견제하기 위해 미국과 중국의 진출을 바라고 있으나, 한편 이들 3국은 지역패권을 추구하는 강대국들이라는 점에서 강대국들의 각축장이 되는 것에 부담을 느끼고 있음.
- 따라서 정치적 야심이 없이 순수한 경제적 협력관계를 확대할 수 있는 우리나라의 진출확대는 중앙아시아 국가들에게 긍정적인 관계 확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할 것임.

선임조사역 고재호(☎02-3779-6652)  
E-mail : [kohjh@koreaexim.go.kr](mailto:kohjh@koreaexim.go.kr)